

# 다시는 양돈 불황이라는 말이 없도록



조진형  
(본회 부회장)

은행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 마치 봄에 개나리 핀 것으로 착각하면서 자세히 보니 초겨울이다.

금년 1년은 어느 해보다도 지루하게 보냈는데 벌써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느낀다.

불황이나 호황없이 좋은 돼지고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국민보건향상에 도움주어야

양돈을 하는 우리의 입장은 불황의 늪에서 너무 오래토록 허덕이니 한 해가 긴 것을 느끼며, 그래도 가는 해가 아쉬워지기만 한다.

지난 연말은 양돈인의 수난으로 생각하면서 봄이오니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부풀었었지만, 봄이 가고 여름이 와도 어려움은 더해 갔고, 가을이 오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대 했었으나, 역시 겨울이 와도 시원스런 한숨을 쉴 수 있는 숨통이 터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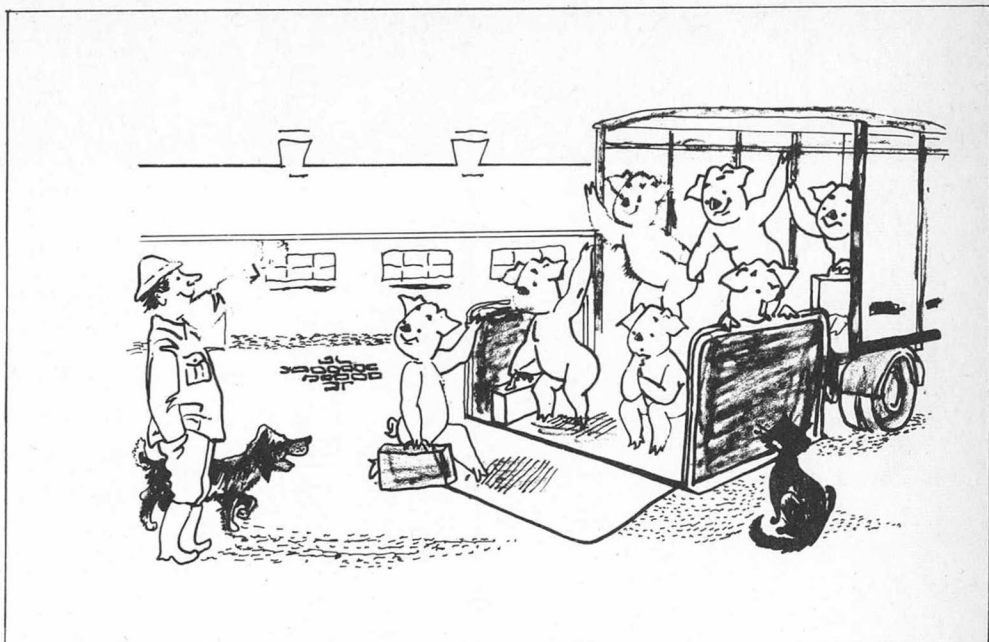
그러나, 금년은 우리나라의 양돈 산업에 많은 발전을 가져온 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세계에서는 18번째로 대한양돈협회가 종돈능력 검정소를 설립하여 7월 5일 역사적인 종돈 경매를 실시하였다.

이에 돼지고기의 육질을 향상시켜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해야겠다고 생각한 600여명의 양돈인들이 전국 각지로부터 참석하여, 대한양돈협회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종돈 개량의 의지를 드높였다. 또 대한양돈협회 양경위에서는 각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돼지고기 요리 강습회와 시식회를 실시하고, 돼지고기요리 팜프렛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계획적인 돈육소비홍보 활동을 하였다. 그에 힘입어서 겨울철에 비하여 하절기에도 돈육 소비 감퇴현상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점도 우리 양돈 산업에 있어 상당한 발전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경이한 일은 축산법의 개정이다.

소규모의 대다수 양돈인들은 전년도부터 계속되는 양돈 불황이 대기업의 신규 양돈 참여로 인한 과잉 생산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대기업 양돈을 규제하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관계 기관에 보냄으로서 급기야는 축산법 개정으로까지 발전이 되었다.

가축과 자연속에서 생활하던 우리 양돈인들도 이제는 법이라는 제한과 구속감을 느끼며 생활해야만 하게 되었다.



일단 법이란 만들어지면 국민이 잘 지켜야 하니,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며 사는 습관도 익혀야 할 것이다.

습관이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습관을 만드는데 적절한 전환시기인 이 시기에 우리 양돈인은 양돈인대로의 바람직한 목표를 세워 투철한 주인 의식과 창조 의식을 가지고, 양돈인 모두가 힘을 합하여 총명한 방향 감각과 지혜를 짜서 불황이나 호황없이 좋은 돼지고기를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주며, 또 국가 경제 발전에 앞장서 가는 산업의 역군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품질좋은 돼지를 생산하려면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품질이 특출한 돼지고기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또, 신품은 요행의 결과가 아니다. 심혈을 쏟은 창조요 정성을 쏟은 결실이다.

우리 양돈인 모두는 대한양돈협회를 정점으로 협회에서는 양돈 사육 현황과 통계를 정확히 수집하고, 소비될 돼지고기의 상황을 정확히 전망하여 전 회원에게 예보해주며, 또 회원은 협회를 믿고 생산을 조절하는데 다 함께 노력하여 다시는 돼지 파동이란 말이 없도록 해야겠다.

땀의 산물인 우리의 위대한 목표는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믿으면서 84년도를 마무리하고 무한의 가능성이 보이는 85년을 맞이하고 싶다. □